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인민군대가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훌륭히 건설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체전을 벌려 122호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양묘장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하였는데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철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22호양묘장이 정말 요란하다고, 하나의 건축군이 형성되었다고,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면서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단일한 수종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식경

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라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줄수 있게 건설된 122호양묘장의 연간 생산량은 2,000여만그루라고, 모든 도들에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면 한해에 2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호뭇하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장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자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망대에 오르시어 양묘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묘장

을 바라보시며 규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이 아니라 공원화된 하나의 거리같다고, 별세상에 온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직관물을 보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가 122호양묘장건설을 통하여 당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의의깊은 로력적선물을 드리였다고, 힘겨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바로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세계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설계단위, 시공단위, 과학연구부문에 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인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과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생산계획을 수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에게는 당에 대한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로동계급이 안아온 혁혁한 성과에 접하고보니 온몸에 힘과 열정이 솟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

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회전으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매와 기질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기계설비들은 기술적성능이 대단히 좋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보조장비들도 그쁘히 갖추고있다고 하시면서 자동화, 현대화수준에 있어서나 다목적측면에 있어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기계설비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장직장현대화공사장,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계생

산량과 질은 주장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올해에 주장직장현대화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주장직장현대화에서 중요한것은 생산 및 기술공정의 국산화비율을 최대한 높이는것이라고,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주장직장을 현대화하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장직장현대화공사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당하는 대책을 세울수 있는 통합생산지휘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데 대한 문제, 공장로동계급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수준의 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에게 정말 대만족했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이며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 통일로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로

얼마전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사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절세위인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한것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성의있는 립장과 애국의 일념의 반영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들로 갈라진 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해방동이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도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제 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다.

민족의 통일열망을 반영하여 얼마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천명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었다.

뜨거운 민족애와 열렬한 조국애로 차넘치는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담고있는 사상의 현명성과 정당성,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통일의 진로를 명시한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국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립장과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진정성》타령과 같은 속뿔뿔이진 망발들을 내뱉으면서 모처럼 마련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애국과 애국, 애국과 애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긴다면 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마다할 리유

가 없다. 그것도 그럴것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에서 새롭게 제시된 로선과 방침은 북과 남의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방도들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민족이 피로써 찾고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애국애족의 이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면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은 순조로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거역하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분열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나중에는 자멸을 면할수 없게 된다.

공화국이 세대와 세대, 년대를 이어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고수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온것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정세국면에서 또다

시 대범하고 실천적인 통일방략을 제시한것은 바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있고서야 제도와 있고 사상과 정견, 신앙도 있다.

피를 나는 동족이 불신과 대립속에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다면 녹아날것은 우리 민족이요,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뿐이다.

조선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진실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엄연한 력사의 진리를 외면하지 못할것이다.

온 민족이 지지하고 만인이 환영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대결의식에 사로잡혀 덮어놓고 시비질하고 부정하는 늙음부터 한다면 북과 남사이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것의 없는것은 물론 조국통일의 날도 그만큼 멀어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혁신적인 제안에 애초부터 거부해나서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분열에서 살길을 찾겠다는것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리익보다 일신의 안락과 집권야욕만 추구하는 애국배족의 추악한 속내만 그대로 드러낼뿐이다.

물론 남조선에서도 통일과 관련하여 아무소리도 없었던것은 아니다. 《신평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이러저러한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본질에 있어서 《제도통일》과 《흡수통일》에 목적을 둔것으로서 민족의 힘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한사코 적대시하며 동족사이의 평화와 단합이 아니라 전쟁과 분열만을 추구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깃들지 않은 이러한 정책아닌 《정책》들은 북남관계와 통일에 도움이커녕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키는 화근덩어리로 되었던뿐이다.

이번에 공화국은 새롭게 제시한 통일로선과 방침이 가장 정당하고 더없는 공명정대한 통일방략이지만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립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다는 립장을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때 공화국의 대범하고 아량있는 립장표명은 숭고한 애국애족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제반 사태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자주적이며 애국애족적인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받들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말로만 통일을 외우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만 매여달리는 그릇된 행동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공화국의 새로운 통일로선과 방침에 적극 동조해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차던지지 말라

최근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기로서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할것을 중요하게 천명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낼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제시되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올려나온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70여년에 걸치는 조국통일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 북과 남이 처한 오늘의 구체적인 현실과 겨레의 지향 등을 반영하여 나라의 통일을 가장 옹호하게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온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갈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립장과 적극적인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비극적인 민족분열의 력사는 어언 70여년을 지속하고있다. 이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온 북과 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이르렀다. 이러한속에서 지금처럼 남조선당국이 《체제대결》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불신과 대결의 감정은 더욱 증폭되고 충돌이 격화되어 나중에는 전쟁의 재난밖에 일어날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공화국이 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옹호한 진로를 명시한것은 북남사이에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날로 높아가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어떻게하나 전쟁의 참화를 막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어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것이 고 민족운명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명감의 발현이다.

오늘 민족의 통일열망은 하늘에 닿고있으며 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하기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그 누구를 불문하고 새롭게 제시된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며 온 겨레가 신심뜨음이 조국

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남조선당국의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촉구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다.

이제부터라도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자주와 대단합을 도모하면서 통일로 가겠는가, 아니면 동족과 계속 대결하면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가겠는가.

전자의 길이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겨레와 민족사의 찬양을 받을 길이려면 후자의 길은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자멸에로 질주하는 길이다.

공동성명에도 지적되어있는것처럼 조국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으며 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엮이며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차던진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수밖에 없다는것이 공화국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엄숙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며 자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오늘의 중대한 기로서 심사숙고하여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얼마전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온 민족이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절세위인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갈데 호소하였다.

하기에 북과 남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천명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량방제안으로서 공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던것이다.

자주와 민족단합, 평화보장과 량방제통일이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의 길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자주가 아니라 외세굴종과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에 매달렸고 민족단합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추구하였으며 평화보장이 아니라 외세와의 북침합동전쟁연습을, 공존공영의 통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북체제붕괴》와 《흡수통일》책동에 혈안이 되어왔다.

이러한 책동들로 인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이르고 전쟁위험이 날로 높아져온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현 남조선 《정권》하에서 북남관계가 한치앞도 전진하지 못하고 완전파산의 지경에 처하게 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족이 70년이상이나 갈라져 대결하며 살고있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혀져야 하며 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공화국 정부, 정

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구이다. 화해하고 단합하지 않고 계속 불신하고 대결하며 갈라져 싸우기만 한다면 언젠가도 통일은 이루어질수 없고 민족적참화만 초래될수 있다.

하기에 북과 남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천명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량방제안으로서 공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던것이다.

자주와 민족단합, 평화보장과 량방제통일이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의 길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자주가 아니라 외세굴종과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에 매달렸고 민족단합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추구하였으며 평화보장이 아니라 외세와의 북침합동전쟁연습을, 공존공영의 통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북체제붕괴》와 《흡수통일》책동에 혈안이 되어왔다.

당, 단체들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이 가장 정당하고 더없는 공명정대한 통일방략이지만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립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북과 남의 합의를 통해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려는 공화국의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립장과 자세를 잘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에 다같이 리롭고 온 겨레가 지지공감하는 민족자주와 단합의 궤도에 주저없이 들어서야 한다.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서에 있는 지금에 와서도 공화국의 정당하고 진정어린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결과 불신을 끝없이 추구하겠다는것이 고 공화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제도통일》의 어리석은 기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불수 없게 될것이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조국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으며 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이 《핵폐기가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하더니, 《진정성없는 위장공세》이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국제공조를 깨기 위한 술수》라느니 뉘니 하며 공화국의 선의의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 반공화국대결과 《제도통일》의 길로 내달는다면 그로 인해 차례질 후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기로서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이러한 책동들로 인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이르고 전쟁위험이 날로 높아져온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현 남조선 《정권》하에서 북남관계가 한치앞도 전진하지 못하고 완전파산의 지경에 처하게 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족이 70년이상이나 갈라져 대결하며 살고있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혀져야 하며 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공화국 정부, 정





# 《금킵》이라는 이름과 함께 빛나는 공장

## ◆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아서 ◆



풍치수려한 평양의 청춘거리에 들어서면 口자형으로 된 4층짜리 건물이 자리잡고있는것을 볼 수 있다. 척 보기에도 정갈하고 아담한 느낌을 주는 이 건물은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다.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피로회복에 좋은 갖가지 음료들과 영양가 높은 빵, 떡 제품들 그리고 사랑, 파자, 껌을 비롯한 수백가지에 달하는 각종 식료품들이 수없이 생산되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일떠선지는 몇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손길을 떠

나 오늘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것이 바로 이 공장의 력사이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언제 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육선수들에게 영양가가 높은 식료품을 공급할수 있는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매우 만족하시면서 한번 나와보시겠다는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의 체육인들의 영양관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을 주선으로 들어 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껌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식료품들을 개발생산할데 대한 문제,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체육부분뿐 아니라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공장은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과학적이면

서도 예측가능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식료공장, 체육인들과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는 갖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광범위하게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지난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진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이 공장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고, 나라의 식료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도 약시키질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 기준이 마련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식료공장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이룩하여 식료공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할드 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금킵》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그 이름을 빛내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공장의 제품본실을 찾은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생산한 맛 좋고 다양한 식료품들을 볼수 있었다.

제품본실에는 공장에서 만든 각종 빵류들과 영양음료들, 파자류, 떡류들 비롯하여 수십여종의 300여가지 식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식료품들의 위생안전성을 위주로 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전시된 제품본실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제7차대회를 맞으며 새로 개발한 식료품들도 전시되어있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하나의 종류,

한가지 식료품을 놓고 더 맛 좋고 영양가가 높게 만들기 위해 끊임 없는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튀기과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튀기기과자앞에서 치즈맛튀기과자, 불고기맛튀기과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맛을 내는 튀기과자들은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 맛이 좋아 널리 소문난 빵제품들은 물론이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떡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공장에서는 우리 민족음식의 하나인 찰떡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과 알맞춤한 크기로 빚어 포장하여 누구나 먹기 좋게 만들고있었다. 쫄깃쫄

깃한 떡의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들깨속을 넣은 찰떡은 주로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있다.

이밖에도 백합과자와 강정, 겹과자와 초콜렛단설기를 비롯하여 방울껌, 여러가지 과일향껌 등 수많은 식료품들과 가정주부들이 어느때나 떡국을 만들어 먹을수 있게 포장된 떡국대 등 어느 것이나 볼수록 먹음직스러웠다.

제품본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것,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 자랑할만 한 멋쟁이 공장

얼마전 우리는 체육인들은 물론 국내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자자한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았다.

종전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생산의 거대한 동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를 맞이한 책임기사는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는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

았다.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부지면적과 로력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제품생산을 종전보다 1.5배로 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의 《전방사령부》로 불리는 종합조종실에 들었다.

이곳에서 책임기사는

종합조종실에 공정관리, 공정분석, 동력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 영상감시체계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해주었다.

공장에는 식료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기호가 끊임없이 높아가는데 맞게 과학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어있었다.

이어 우리는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책임기사는 우리에게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생산현장들에서는 껌, 파자, 사랑, 빵, 햄 등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당과류들과 식료품들이

자동흐름선을 따라 줄줄이 생산되어나오고있었다.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아 기대들마다에서 갖가지 식료품들이 련이어 생산되어 나오는 광경은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호뭇하게 해주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격폐시키고 현대적인 분석설비들과 위생통과시설들, 공기정화설비 등을 그쯘히 갖추어 놓아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생산현장의 공간을 리용하여 특색있게 설치해놓은 미끄럼식운반기였다. 작업반들마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총마대에 있는 미끄럼대를 타고 아래층에 있는 제품창

고로 줄지어 내려가고있었다. 폭포처럼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은 정말 장쾌하다고 할지 하여튼 로력과 전기를 거의나 쓰지 않는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운반기가 틀림없었다.

결국 고도로 자동화되고 집약화된 생산공정은 이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멋쟁이공장으로 만들수 있었다.

참으로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나라의 식료공업발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현대화된 공장을 돌아보며 자기의것,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확신을 깊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그 이름도 정다운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철호



기자 : 공장에서 와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크지 않은 공장이 어떻게 나라의 식료공업의 《금킵》이 될수 있었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지배인 : 우리 공장에서는 로동자인 일군이건 누구나 사색하고 창안한다. 한달에 한번, 한주일에 한번씩 매 사람이 자기가 착상한것을 가지고 발표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당선된 창안품은 현실적가능성을 따져보고 제품을 만들어 실현시키고있다.

모방은 곧 죽음이다. 우리는 남들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본따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더 맛있고 영양가 높고 모양도 새롭게

만들어 생산하고있다.

종업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1~2달 혹은 6개월정도의 강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주문에 의한 새 제품개발에도 힘을 넣고 있다. 매일 판매되는 제품의 량을 보고 수요를 예측하며 수요가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생산을 중지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자신들을 따라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

고있다. 우리 공장에서 사색이 없는 하루란 없다.

기자 : 로동자들이 현장에서 과학기술보급실과 련계를 가지고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지배인 : 그렇다. 우리 공장에서는 현장에 관형 컴퓨터를 도입하여 과학기술보급실과 련결해놓고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면 과학기술보급실까지 가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내용을 원격으로 문의도 할수 있게 하였다.

현장에 과학기술보급실

을 옮겨놓은것이냐 다름없다. 그렇게 하니 모든 종업원들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만들어보려는 열의도 높아질뿐아니라 더 많은것을 배우려고 하고있다.

기자 :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창안한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지배인 : 우리 공장에서 수백가지나 되는 제품들이 생산되고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피라는 사색과 노력의 결과이다. 기자동무도 공장을 돌아보았겠지만 작업장이 사방으로 보이게 공중에 종합조

조를 설치할 대단한 착상을 한것도 우리 종업원들이다. 이렇게 하니 부지면적은 전혀 늘이지 않으면서도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새로 개건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설치하여 적은 인원을 가지

고도 수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종합조종실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손금보듯 들여다보며 조종하고 지령을 주니 생산실적도 부쩍 올라간다.

옷층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아래층 제품창고까지 저절로 가당도록 옷층과 아래층을 련결하는 미끄럼대를 설치한것은 리정호동무의 착상이다.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전기와 로력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 현장에서 창고까지 날라갈수 있게 된 미끄럼대를 보

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래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극진한 사람만이 이런 훌륭한 착상도 할수 있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공장일군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였다. 하기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공장의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고 제품생산에 도움이 되는것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한다. 우리는 세계와 도전할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식료공장으로 되기 위해 치밀한 분석과 검사를 통해 맛과 질, 상표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겠다.

## 누구나 사색하고 창안한다



중심을 설치할 대단한 착상을 한것도 우리 종업원들이다. 이렇게 하니 부지면적은 전혀 늘이지 않으면서도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새로 개건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설치하여 적은 인원을 가지



